통권 125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2. 3.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

각계 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11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6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투쟁 대표단 50여 명은 "테러범죄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방지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고 인권 침해와 국정원 권한남용의 도구가 될 우려가 커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테러방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회장 • 2 /출소장기수 천장호 선생님을 찾아서 곽인석 편집위원 • 6 /양심수 김경환님의 가족 이경희님을 찾아서 오영순 편집위원 • 9 /운영위원 송경용 신부님을 찾아서 박정범 편집위원 • 12 / 한총련 양심수 이창호님께서 보내온 편지 • 14 / 소위 '민혁당 사건' 임태열님께 보내는 편지 김민정 회원 • 15 /감옥에 보내는 수필; 유병문 편집위원 • 16 /산행기 신현부 회원 • 17 /회원교육강좌 보고; 이진 회원 • 18 /특집 '발전노조 파업은 애국이다' • 19 / 나의 삶 나의 일터 여혜정 회원 • 22 /광고 • 23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4 /재정보고 • 31 / 회비납부 • 3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765-5282 **Fax**: 745-5604
회원모임방_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Tel, Fax**: 888-4470 **URL**: www.yangsimsu.or.kr

또 다른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 미국은 이 땅에서 양심수를 낳게 하는 또 하나 주요요소이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악의 축' 을 떠벌이던 부시가 오산 미공군기지 U-2기(첩보기) 격납고에서 있었던 환송식에 나타난 모습은 참으로 역겹고 꼴불견이었다. 아름답고 풍요했던 남의 땅을 반세기가 넘게 점거하고 더럽히면서 마치 제 땅이나 되는 듯이 주권국가의 출입국절차도 없이 저들끼리 보내고 떠나는 모습이 그렇고, 1만 7천 700여 살인폭탄을 아프가니스탄에 퍼부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살인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랬다. 그는 양가죽을 뒤집어 쓴 승냥이처럼 검은 속셈을 감추며 건방지고 오만하게 지껄였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국제적 테러가 근절될 때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 이라며 '대량살상무기를 그냥 두지 않겠다' 고 했다. 노암 촘스키의 규정대로 미국의 외교정책이야말로 진짜 테러리즘이고 부시가 그 중심에 서 있다면, 그의 말은 이렇게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를 위해 미국에 도전하거나 자주 · 정의 · 평등 따위로 세계평화를 내세우는 세력이 있는 한 미국의 응징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특히 N · K(이북)의 대량살상무기 근절을 위해 언제든지 공격하겠다' 고.

'전쟁의 해' 라고 선언할 정도로 호전성을 드러낸 부시가 이 땅을 떠나던 날 「부시방한에 따른 기사」로 신문마다 지면 대부분을 채우고 있을 때 한 신문의 한쪽 모서리에 색다른 기사가 실려 있었다. 「지난 18일 발생한 한총련 학생들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미국쪽이 '테러사건' 으로 보고 우리 경찰에 관련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었다」고 쓰고 있었다. 이 기사가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한 것은 9 · 11테러사태이후 미국 · 일본에 이어 이 땅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과 함께 이미 있었던 반테러법을 크게 강화하여 개정하는 이른바 애국자법(Patriot Act)을 10월 24, 25일 연이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켜 부시의 서명으로 발효시켜놓고 있으며, 일본 고이즈미 정권도 10월 29일 테러대책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가하면 아무 관련도 없는 뉴욕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이른 바 별난스런 한 · 미 · 일 공조체제를 꾸리려 했다. 그것도, 이제까지 정치개입, 직권남용, 이권개입, 인권유린 등으로 온갖 악역을 다했던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농성과 관련, 공식으로 '테러'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보도된 대로라면 저들의 패권적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나라나 세력을 테러집단으로 (속으론) 규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방국가임을 강조하며 반테러수단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9 · 11테러사태이후 살인전쟁을 벌이면서 대테러전에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 줄을 서라며 선과 악으로 우방과 적으로 가르고 있었던데서도 드러났었다. 미국(인)이 이땅에서 저지른 숱한 범죄행위 등으로 그들의 중요시설 점거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우리 경찰에 알려달라고 요청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경찰청 사람 말대로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때도 해당 학생들의 비자발급거부 등으로 입국을 통제했었지만 '테러' 로 규정하지는 않았었

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전국민중연대와 '부시방한 반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농성관련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 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책임자에게 주한 미국 대사관측의 테러규정과 신원확인요청 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 미국의 배타적 국가이익과 부도덕 행위에 왜 우리가 공조해야 하느냐이며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한데 굳이 인권침해 특별법을 만들고 그것도 인권유린으로 지탄받아오고 있는 국정원이 주도하려는데 있다.

지난 2월 26일 여·야는 위에서 말한 인권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확대가 확실시되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월 11일 공청회를 거쳐 12일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테러방지법은 지난 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를 구성하도록 지시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당·정회의, 국무회의 등 대테러관련 회의를 거쳐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 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11월 20일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거센 반대에 부딪힌 국정원은 입법예고한 이 법안(입법예고기간도 최소 20일 이상이어야 함에도 겨우 10일이었음)을 공지도 없이 수정하여 22일 차관회의에 올렸다. 법안수정은 20일 토론회에서 집중 비판된 (물론 이 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연장, 참고인구인·유치 등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지만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주도하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드러나있는 국정원 수사권 규정을 없애는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사실상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정원이 공안권력을 들어 쥐겠다는 속셈은 여전했다. 같은 날 68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이 결성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회단체의 반대의견서를 보냈다. 그리고 국정원·국회·한나라당사앞 등에서 항의집회를 했고 1인시위도 이어졌다. 차관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11월 26일 일부수정되어 차관회의 가결, 당·정확정, 27일엔 25조를 삭제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리고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1차 청문회를 열었고(2001.12.7) 대한변호사협회도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2002.1.23) 이처럼 각계 각층의 반대의견이 있는 동안 한때나마 법안처리 말이 없다가 새해들어 2월 15일 여·야 총무는 2월 국회회기내에 처리한다는 합의를 했고 위에서 말했듯이 다시 3월 12일 처리를 결의하였다. 그렇다면 11월 26일 정부안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줄여서 알아보기로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내면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테러는 무차별·극단적 전쟁수준 양상이어서 테러 대책기구의 구성 ·예방·구조활동·수사·처벌 등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고 했다. 그러나 9·11테러는 미국에서 일어났고 잘잘못을 떠나 미국이 뿌린 결과였다. 왜 미국에서 있은 테러양상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이땅에서, 더구나 세계 어느나라 어느단체하고도 테러당할 만한 혐의를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하는대로 덩달아 따라나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게 대한변협, 민변 등 법조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의 같은 의견이다. 바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범죄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인 인도법 등 수없이 많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 · 검찰말고도 대검찰청공안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항공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경찰특공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진 국가기관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다. 이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다음으로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테러 개념의 애매모호성이다.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과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라는 요소를 범죄의 지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 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에서 남용을 부를 수 있다. '테러단체' 에 대한 규정도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이라 하여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는 미군기지반환운동, 매향리국제폭격장폐쇄운동 등 불평등한 한 · 미행정협정으로 부당하게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는 미군시설의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김에 따라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울 개연성을 갖게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처벌규정에서도 국가보안법처럼 무겁고 또 가중처벌하고 있다. 형법 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를 비롯, 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136조(공무집행방해), 172조(폭발성물건과열), 172조 2항(가스 · 전기등 방류), 제73조(가스 · 전기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溢水)), 185조(일반교통방해), 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 방해), 192조(음 · 용수의 사용 방해), 193조(수도 음 · 용수의 사용 방해), 258조 1항(중상해(重傷害)), 259조 1항(상해치사), 261조(특수 폭행), 262조(폭행치사상), 278조(특수체포 · 특수 감금), 281조 1항(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284조(특수 협박), 289조(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367조(공익건조물파괴), 369조(특수 손괴)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군형법 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항공법 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기 운항 안전법 11조(항공기 운항 저해죄), 철도법 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81조(직무 집행 방해에 대한 벌칙), 85조(발포하거나 돌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조(벌칙), 원자력법 115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69조 2호(벌칙), 군사시설보호법 14조(벌칙)의 죄 등 대해서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적용 항목들을 모두 든 이유는 새로 테러 방지법 따위가 없다 해도 이 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도 이처럼 완벽하게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테러의 개념과 테러 단체의 개념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 많은 범죄의 그물망에 걸려 가중처벌 받게 되다. 이 모든 죄항의 미수 또는 예비 음모도 자의적 해석으로 가중처벌 받는다. 테러단체 구성, 테러자금 조달, 테러 범죄의 미신고(불고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동향 파악과 출국 조치 등 법 자체의 불명확성은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적용의 남용과 그에 따른 혹심한 인권침해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의 처음 발의자가 국정원이었듯이 테러 대책기구의 중심적 역할도 국정원일 것임은 뻔한 일이다. 대책 회의의 실질적 권한 장악도 국정원장이 쥐게 되어 있

고 대테러 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 는 그 자체의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에 두게 되었으며 그 조직도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대테러대책회의 운영 중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국정원장이 맡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다 알려졌듯이 특수비밀정보수사기관이다. 그리고, 최종길 교수를 죽이고 은폐조작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를 비롯 이른바 「수지 김 사건」의 은폐 조작이 드러났으며 그 뒤에도 김삼석 · 김은주 남매 간첩단 사건(배홍룡씨 폭로), 박충렬씨 간첩조작사건, 김형찬씨 고문수사사건, 97년 대선을 앞둔 이른바 북풍공작사건, 충북지역 간첩 조작음모사건 등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었다. 이러한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해외 정보기관으로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왔었다. 최근에만도 각종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등 정치개입, 직권 남용, 인권 침해의 대명사격인 국정원에 다시 반테러법을 만들어 그 실질적 역할을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 침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부당한 대테러전략과 무관치 않고, 미국은 이땅에서 양심수를 낳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다. 이 시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농성과 관련 미 대사관측의 '테러' 따위 말이 있는 가운데 학생과 노동자 등 14명이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다. 만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제정 · 발효된다 했을 때 이들 학생과 노동자들은 '테러행위자' 로, 이들 단체는 '테러단체' 로 규정받아 그 대표는 '수괴' 가 되고 최고 사형언도까지 받을 수도 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미국의 동북아정책이나 미군주둔, 미국의 경제침탈, 미국의 범죄행위 등으로 이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양심세력이 공안대상이 되어 많은 구속자를 낳고 있었다. 미국의 전쟁책동과 긴장고조 · 무기강매 행위나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 구조조정 · 정리해고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있다. 그래서 양심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가협이 민주화실천의 강한 의지로 결성되었듯이, 그리고 자주 · 민주 · 통일만이 양심수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되었듯이 이제는 이땅에서 외세를 모두 몰아내고 외세의 부당한 전쟁책동과 구조조정 · 정리해고의 압력을 완전히 물리쳐야만 양심수없는 세상, 6 · 15남북공동선언을 옳게 이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부당한 테러행위를 반대함을 밝힌다. 편견에 대한 특별국가나 세력만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 생활토대를 해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도 나라안팎의 부당한 폭력집단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고 6 · 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비롯한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정의 · 평화 · 인권 등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폭력집단을 규제하는 것은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의 9 · 11테러에 이은 미국 · 일본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당한 대테러전략에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국정원의 권한확대와 인권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또다른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상공회의소 농성관련 양심수를 비롯한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조치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세월도 비껴간 투사의 기다림

곽인석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벅찬 해오름으로 시작하는 한 해는 왜 으레 겨울로부터 시작하는가. 겨울다운 계절을 별로 음미한 적 없는 올해는 그 참 의미를 찾기가 여간 바쁘지 않게 되었다. 사람도 자연도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뒤바뀌어 가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역사의 큰 물줄기에 당당히 몸을 맡기셨던 선생님을 뵈옵게 됨은 고원에서 폭포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기쁨이다.

천장호 선생님(오른쪽)

지난 달 27일 오후 인천 동암역에서 김수룡 선생님과 오영순 편집위원을 만나 천장호 선생님을 뵈러 시내버스를 탔다. 선생님께서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셔 기동이 어려우신 관계로 선생님과 오랜 동지애로 생을 같이 해오신 김수룡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76세의 김수룡선생님께서는 천장호선생님의 약 공급과 문병을 하시느라 2시간도 넘게 여러 번 차를 바꿔 타시며 성남댁에서 이곳 인천까지 다니신다고 한다.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작은 연립주택을 찾아들었다. 한달 전에 이곳 큰 아드님댁으로 오셨다 한다. 방문을 여니 건강하시고 낙천적이셨던 자태가 아닌 병색이 완연하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신음하시는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 절을 올리니 벽에 기대고 앉으시는 모습에 송구스러움이 앞선다. 말씀을 여쭙기조차 머뭇거려졌으나 김수룡선생님의 도움으로 당신의 생을 여쭈었다.

소년 시절…

천장호선생님께서는 1919년 5월 24일 부산시 동래구(현 해운대구) 석내동 241번지에서 2남 4녀 중 셋째 차남으로 태어나셨다. 모레가 83주년 3.1절이고 보니 순간 기미년 3.1운동의 영상이 선생님의 모습에서 현장처럼 느껴졌다.

선친 천간용 님과 김정렬 어머님은 순박한 농삿꾼이셨다 한다. 동네 한문서당을 어려서 다니던 기억을 더듬으신다. 2년제 금사간이학교도 다니셨으나 주로 부모님을 도와 농삿일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내셨단다. 초량 보습학교에서 1년 정도 보통학교 과정을 보충하신 후 상급학교 진학 검정고시를 거쳐 양산 통도사에서 운영하던 통도중학교를 다시 1년 정도 다녔을 거라고 하신다. 17세가 되던 해 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 교오토오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으나 소년 천장호는 신경쇠약증세로 얼마 후 중퇴하였다. 쌀집 점원으로 자전거 배달을 하면서 힘든 고학을 하였던 것이다. 쌀집 주인은 소년의 성실성을 보고 붙잡아두려 하였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소년은 김석주라는 친구를 통하여 부모님 발신으로 거짓 전보를 치게 하여 1년만에 부산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나의 소원은 조국통일이오,
그 염원으로 살아 왔소.
자신이 믿은 신념은 궂은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오."

생애의 해방

이듬해 19세에 결혼을 하신 선생님은 아들 둘, 딸 하나의 자녀를 두시었다. 그후 부산 거제리에 위치한 조선견직공장을 다니시던 중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으셨다. 조국해방과 더불어 선생님 생애도 해방이 되시었다. 농민조합의 소작권쟁취투쟁에 불이 붙고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좌 우 대립이 심해졌는데 선생님이 이 투쟁의 대열에 적극 참여하신 것이다. 당시 선생님의 고향인 부산 석대동에는 이상기라는 동래고보 출신의 걸출한 활동가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상기는 바로 일제때 항일 운동하던 연안파의 한사람으로, 뒷날 휴전협정 때는 협상 당사자로 남일장군과 함께 활약했으며 소련대사로 역임했던 이상조의 동생이었다 한다.

선생님은 사촌동생인 천대호를 통해 1950년 6.25전쟁 소식을 들으셨다. 당시 부산에서는 속칭 '들치기' 라는 것이 백주 대낮에 행해졌는데 젊은 남자만 보면 무조건 잡아서 군대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 당시 부산 외곽에는 '워커라인' 이라 불리는 방어선이 획정되어 젊은 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고 한다. 선생님은 김해비행장보수공장으로 피신하시려 경찰 트럭에 몸을 숨겨 구포 관문을 간신히 통과하셨단다. 이후 누님댁을 거쳐 삼촌댁 과수원 헛간에서 4개월을 숨어 지내셨다.

신불산 빨치산이 되어

51년초 겨울로 접어들자 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금정산에 올라 1주일을 버티고 울산시 삼남면과 양산군에 걸쳐있는 신불산으로 향하셨다. 전설적인 신불산 빨치산 투쟁사의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부산시 당재건 사업을 결의하고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선생님 생애 잊을 수 없는 박정배 동지를 만났다고 하신다. 박정배선생은 당정치위원으로 활약하셨고, 선생님과 함께 옥고를 치르시다 출소 후 1978년 해운대에서 작고하셨다고 한다. 당시 신불산에는 동부지구당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공인두 지구당책임자 밑에 20여명의 당 일꾼이 함께 활동했었다고 한다. 보급투쟁과 울산철도운송보급로차단투쟁을 통하여 빨치산 전사들이 꽃잎처럼 스러져간 신불산의 울림이 선생님의 떨리시는 신음소리에 진하게 배어 나왔다. 그 후 신불산에는 남도부사령관(본명 하준수)이 내려와 지휘했는데, 전사 2명이 총소리로 기지를 발휘하여 토벌대 1개 사단을 물리치는 등 전설적인 신불산 유격대 활동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 전설들을 알알이 꿸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까움과 늦게 찾아 뵌 죄스러움으로 밀려온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시고

52년 1월, 선생님은 시당재건사업차 동래 온천장 앞 집에서 머무르던 중 미군과 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박정배 동지와 함께 체포되셨다. 집주인의 밀고로 이미 포위망이 좁혀져 순간적으로 당하시게된 것이다. 미군 장갑차까지 동원되고 앞에서는 동족인 경찰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더란다. 결국 미군 CIC와 전쟁 중 부산으로 내려와있던 치안국을 거쳐 부산 거제리포로수용소로 이감되신다. 얼마 후 선생님은 부산형무소로 다시 이감되셨는데, 당시는 공판 없이 처형이 집행되는 무법천지의 살인극이 펼쳐지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구연철선생님과 지금 옆에서 보충설명을 하며 전 후시대를 연결해주시고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까지 해주고 계신 김수룡선생님을 만나셨다고 한다. 끔찍한 고문으로 동지들의 숱한 죽음을 피터지는 심정으로 지켜보셨다고 한다. 말씀에 힘이 부치신다. 때론 기억도 흐릿해지시면서

"평양은 그만두고라도
임진강 건너 도라산역에라도
한번 가봤으면…."

당신의 연세도 잘 못 더듬으신다. 김수룡선생님이 안계셨다면 이 송구한 글조차 엮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61년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신 후 옥고를 치르시던 선생님은 67~8년경에 출소하셨는데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 때 받으셨던 가족의 박해사 또한 너무나 잔인했다. 처자식의 비참한 생활은 물론 형님댁의 조카들조차 연좌제에 걸려 취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 장기수선생님들 가정에서 겪는 공통의 아픔으로, 혈육인 가족들을 증오로 갈라놓는 것이다. 주입식 반공교육은 모든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감옥 안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들 때문이라고 각인시켜 놓고 있었으니 이런 패륜적인 행태가 그 어느 지상에 또 존재한단 말인가.

출소 후 선생님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그야말로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셨단다. 이미 사모님은 작고하셨던 터라 자녀들도 있고 하여 69년에 지금 병수발을 들고 계신 김은숙 사모님과 재혼을 하셨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만 하시던 막노동꾼 선생님에게 또 다시 생의 절망감이 검은 사신처럼 닥쳐왔다. 1975년 악법이요, 위헌인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57세의 연세로 다시 청주감호소에 갇히게 되셨으니 역사의 정도에 대한 신념이 굳건하지 않으셨다면 생을 어찌하셨을 지도 모르리라.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1979년 출소 후 다시 막노동으로 이일 저일을 찾아다니셨단다. 그간의 고통을 누가 어림할 수 있으랴. 1995년에서야 인천에 사는 작은 아드님이 마련해드린 충북 단양 어상천면 석교2리의 시골집으로 옮기셨단다. 텃밭도 일구시며 생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한가한 시간을 맛보게되신 것이다. 가끔 서울에 올라와 동지들과 산행도 하시고 집회도 참석하시면서 최근까지 건강한 모습이셨다. 그러나 얼마 전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찾았는데 췌장암이라는 진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병원 치료도 받으셨으나 별무효과였다. 요즘은 이북에서 개발한 금당2주사약과 장명이라는 버섯다당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고통이 덜하고 식욕이 돋구어졌다고 하신다. 김수룡선생님께서 틈나는대로 병수발을 하시면서 동지애를 펴고 계신다.

통일의 염원과 신념으로

앉아 계시기조차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뵈오니 서둘러서 후배 일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여쭈었다.

—"나의 소원은 조국통일이오, 그 염원으로 살아 왔소. 자신이 믿은 신념은 궂은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오."

—"선생님 부디 쾌차하셔서 평양도 가보시고 옛 동지 분들도 상봉하셔야지요."

산행 때나 모임 때면 항상 낙천적인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을 환하게 해주시던 선생님이시건만 당신의 생이 이제 어느 메쯤 와 있는지 왜 모르시겠는가.

—"평양은 그만두고라도 임진강 건너 도라산역에라도 한번 가봤으면…."

—"선생님 가셔야지요, 그곳도 우리 땅인데 조국통일 투쟁에 몸 바치신 선생님께서 왜 못 가시겠습니까..." 속으로만 외쳐대고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걷잡을 수 없었던 시간을 남긴 채 하루의 해는 그렇게 지고 있었지만, 붉게 물들인 역사의 흔적들은 내일 또 다시 불덩어리로 타오르지 않겠는가!

스스로에게 다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참 사람

오영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봄을 알리는 길목에서 사람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편다. 두팔 벌려 봄을 맞이하려는 모습은 김경환씨 집도 예외는 아니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씩씩함과 싱그러움이 묻어나오고 있는 그녀. 아늑한 커피숍에 자리잡고 앉아 아내 이경희님과 마주하고 보니 싱그러움과 씩씩함에 매혹되고 만 것은 정작 나였다.

이경희님과의 첫 대화는 며칠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

"얼마전 작은 딸 일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였어요.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구속되여 2년 6개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해요. 아들 일지(초등 4년)에 비해,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며 보채는 딸 승지에게 '열 밤 자면 올거야' 아니 '어린이날은 정말 올거야' 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얼래고 달래기를 수십 번했어요, 이번에도 입학식 전에 아빠가 온다고 하여 아빠를 찾는 아이를 달래고 그렇게 승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하는 아내 이경희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어 아내는 남편 김경환이 구속되기 까지의 지난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 대학생이였던 김경환은 참 맑고 순수하기 그지 없었던 청년인 것 같다.

80년! 피비린내 났던 광주항쟁의 진실과 만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이에게 큰 충격이였듯 김경환에게도 큰 고통이였다 한다. 광주항쟁의 진실을 자각한 뒤, 김경환은 자신만의 삶에 안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하루를 산다. 그해 5월, 대학 도서관 옥상에서 밧줄을 타다 떨어진 선배가 전투경찰에 의해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히고, 결국 그 선배가 식물 인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식물 인간이 된 선배를 목격하고서, 그 시대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글로나마 전달하고자 했던 그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학생기자 활동을 한다.

그러던 어느 해, 김경환에게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원 민주화 투쟁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돌변하였는데, 학생투쟁지도부를 비판한 글을 신문 사설에 올린 게 화근이였다. 학생 투쟁지도부의 비판글을 읽게 된 학생회는 당연히 분노했고,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신문을 불태우며 교수가 쓴 사설로 오인하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한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김경환은 학생 투쟁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자신이 쓴 사설이라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평생을 낮은 곳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스스로 다진다.

이후 노동자의 삶을 몸소 체험하며 느끼고자 했던 그는 안해 본 일이 없는 듯 했다. 인쇄 기계공, 용접공, 건축 노동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며 힘들게 살았던 그가 진보언론 '말' 지에 정착한 것은 94년도였다.

'말' 지에 정착한 이후로 진보언론에 있는 것 자체가 활동이고 '말' 지에 있는 것만으로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생각한 이경희씨는 남편 김경환씨에게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으며, 결혼 이후 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줄 알았다고 한다.

1999년 9월 9일 '민혁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가?

"간첩 조작단 사건에 우리 남편이 연루될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영환, 조유식, 심재춘, 하영옥이 잡혀 들어가 세상이 시끌벅쩍 한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김경환 집에 불행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다.

"당시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초인종을 누른 수상한 사람이 있었죠. 재건축 문제로 의논할 일이 있다는 낯선 남자의 방문을 받고도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있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아들 승지를 학교 보내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위층과 아래층에서 후다닥 거리는 소리와 함께 눈깜짝할 사이에 문을 열어제키는 건장한 사람들을 막아낼 재간은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웠지만, 그 살벌한 광경을 목격한 아들을 침착하게 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수색영장과 체포 영장을 내민 불청객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남편은 의연 했어요. "별일 아니야! 금방 올께." 라며 그렇게 떠난 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소위 '민혁당' 사건은 1997년 자진 해산을 공식 선언한 조직으로 이 사건의 종결을 끝으로, 한국전쟁 이래 다시 찾아온 집단적 이념 운동이 막을 내린 사건이였지만, 지금 그는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방조제, 편의제공 혐의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2년 6개월을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김경환, 그가 얼마전 옥중 산문집을 냈다.

"비상을 꿈꾸는 새는 대지를 내려다 본다."라는 옥중 산문집을 출판한 것이다. 자세히 책을 읽어볼 겨를은 없었지만,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사람인지 단락 단락에서도 묻어나오고 있는 듯 했다.

김경환, 그가 출소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아내! 2년동안 미루고 못갔던 여름휴가도 가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기차여행, 비행기 여행도 해보고 싶다는 아내! 미처 장만하지 못한 남편의 롤러브레이드를 장만하여 올림픽 공원을 누빌 거라는 아내 이경희는 남편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남편은요, 시장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음식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오면 손수 술안주를 맛있게 만들어 예쁜 그릇에 담아내는 걸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그 바람에 주말마다 가족들의 밑반찬을 장만하는 건 당연지사 남편 몫이였구요. 남편이 반찬 만들때 오히려 음식할 줄 모른 전 옆에서 보조 역할만 했다니까요? 물론 사람들을 좋아해 술을 즐겨 마시다 보니, 늦게 들어온 날도 다반사였죠. 그러나 주말은 가족들에게 투자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서 롤러브레드를 타기도 했구요. 산을 좋아해 가까운 산행을 다니기도 했구요. 승지(딸)는 엄마와 함께, 일지(아들)은 아빠와 함께 주말마다 목욕탕 가는 게 우리집 기쁨이였죠.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목욕을 오래 하는 편이잖아요. 목욕탕 입구에서 모녀를 기다리다 지친 아들 녀석이 여탕 입구에 대고 '우리 먼저 간다' 고 소란 피웠던 풍경과, 그 앞에서 우리 모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남편 모습이 떠오를 때면 왜 이리 안타깝고 애닯픈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목욕탕 앞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는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은 매주 목욕탕을 간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경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 승지는 누가 데리고 가나요?"

"다행히 이모부가 옆에 살아요. 아들 승지는 이모부

가 데리고 가요" 라며 지금도 목욕탕앞에만 서면 유독 남편이 더욱 그리워진다는 아내의 눈가는 어느새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같이 목욕가고 아이들과 함께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올릭픽공원을 누비고 싶다는 아내의 소박한 꿈은 아직도 2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정작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흐를 것 같지 않은 세월이 흘렀어요. 살았던 수감 생활보다 6개월 짧은 2년 세월이라 생각하니 요즘은 그것마저 위안이 되기도 해요." 라고 말하는 이경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실감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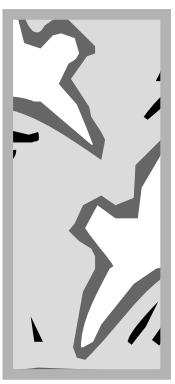
김경환이 옥중에서 아이들에게 보낸 시다.

잘 들어봐 승지야
참은
참나무, 참꽃, 참깨 할 때
참이야
거짓이 아닌 진실
가짜가 아닌 진짜란 뜻이야
참 좋은 말이지?
우리 참사람이 되자

잘 들어봐 일지야
참은
호두 속이 꽉 찼네 할 때
참이야
비어있는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란 뜻이야
참 좋은 말이지?
우리 참사랑을 하자

매일같이 날라오는 엽서 겉봉엔, '꿈나무 두 그루 자라는 자리', '일지나무 승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곳' 이란 글귀가 적혀 있단다. 꿈 나무 두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집에 그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할 날을 소원하며, 오늘처럼 따스한 봄날에 아내의 소원처럼 가족들과 함께, 롤레브레이드를 타고 올림픽 공원 뿐만이 아닌 이 땅을 자유롭게 누비며, 작은 행복을 누리며 밝고 건강하게 사는 김경환씨 가족을 언젠가 다시 만나보리라!

양심수후원회 소모임 소개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여러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회원교육과 시사강좌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배우는 '시사모임' (송창학 016-235-3726)
▶ 우리의 새로운 얼굴로 널리 등장할 '홈페이지관리모임' (장재영 02-977-8363)
▶ '후원회 소식' 을 만들며 글쓰기를 서로 나누는 '편집모임' (이승미 016-395-0725)
▶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장기수선생님후원모임' (이정태 017-281-5500)
▶ 양심수와 따듯한 공감을 형성하는 '양심수에게 편지쓰기모임' (고광희 017-230-7593)
▶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을 일구어내고자 하는 '회원사업모임" (노혁 019-323-0598)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운동은 삶이고 문화입니다."

박정범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봉천동 나눔의 집. 아마 소위 '운동권'이거나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 나눔의 집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눔의 집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경용 신부(43)가 바로 그 사람이다.

송경용 신부님(오른쪽 끝)

조선의 예수

나눔의 집 예배당 정면에는 사연이 깊은 십자가가 걸려 있다. 송경용 신부는 이 십자가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어쩌면 나눔의 집과 자신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상징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92년 9월 경 이었습니다. 철거민들과 빈민들의 따뜻한 쉼터로서, 장기수 선생님들의 안식처로서 역할을 하던 나눔의 집에 큰불이 났습니다. 아무 것도 남지 않고 전소가 됐어요. 물론 성당 십자가도 타버렸지요. 그때 금재성 선생님께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조각을 했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는 금재성 선생님 얘기를 하던 중 잠깐 눈시울을 붉혔다.

"금재성 선생님은 결국 고향으로 못 가시고 운명하셨지요. 선생님은 한달 정도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이 만들 십자가를 구상하셨고, 한달 정도는 나무를 구하러 다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머리를 자세히 보세요. 상투를 틀었잖아요. 바로 조선의 예수랍니다."

사실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예배당을 죽 둘러보긴 했어도 십자가를 자세히 보진 못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한참동안 들여다본 십자가에는 분명 상투를 튼 예수가 있었다.

"아이러니잖아요. 장기수 선생님이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유물론적인 시각에서는 관념론이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필자의 머리에서는 이런 생각이 흘렀다.

"장기수 선생님들이 그립다. 나눔의 집 같은 교회면 북한에도 마을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사상,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최고 최상의 사상 아닙니까. 20년, 30년을 옥살이 한 선생님들이 출소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참 저는 그때 많이 놀랬어요. 불이 난 이 나눔의 집도 장기수 선생님들이 노구를 이끌고 들통 짊어지고 벽돌과 모래를 날라서 지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청년회가 나눔의 집에서 같이 있게된 적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은 새벽까지 토론하고, 대자보 쓰고, 술 먹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쫓아냈어요. 선생님들 보고 배우라고 말입니다."

빈민운동과 나눔의 집

원래 송경용 신부는 연세대학교 건축학을 전공했었는데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의 상황이 '공부'를 할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넉넉하지 못해 신문팔이, 구두닦이, 우유 배달 등 안 해 본 것 없이 모두 했는데 결국 대학에 들어 와서도 일신의 안일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그를 짓눌렀다.

"79년부터 상계동 산동네에서 야학을 했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큰 규모였어요. 주로 산동네 철거민들과 빈민들의 자식들이 학생들이었죠."

4학년이 되자 고민이 깊어졌고 가난한 그들과 길게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 성공회 신학교 편입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외형적 성장이나 신도 숫자를 늘리는 일이 본래의 교회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주거, 교육, 탁아, 의료 등 가난한 이웃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열린 교회 나눔의 집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머니는 청량리로 몸팔러 가고 딸은 껌팔이로 거리에 나서는 모습. 철거와중에 깔려 죽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들과 함께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95년 삼성문화 여름호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다.

장기수 선생님이 맺어준 인연

송경용 신부가 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92년부터다. 당시 권낙기 선생님과 노태훈씨가 찾아와서 출소 장기수 선생님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인 게 계기가 됐다.

"성공회대에 학생으로 있을 때 우연찮게 신영복 교수 밑에서 일을 보게 됐습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수님이 전부를 다 관리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조금 맡아서 했지요. 그러던 중 선생님이 제게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석방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선생님들을 시골 양로원이나 시설로 보냈는데 거기 가면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 때 두 분이 시골에 계셨는데 제가 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무작정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아산 요양원에 계신 분을 일단 봉천동 산동네에 모시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해마다 나오신 선생님들을 모시게 됐죠.온양에서 조창손 선생님과 김석형 선생님을 처음 보는 순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데, 두 분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안에서도 줄곧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흉내라도 내볼까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가난해져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 신부에게 장기수라는 화두가 새로이 던져진 것이다.

92년부터 장기수 선생님으로 인해 맺어진 양심수 후원회와의 인연이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운영위원이란 직함이 부끄럽습니다. 특히 권오헌 회장님의 헌신적인 모습에 늘 감탄합니다. 우리 후원회 회원들이 10년 동안 꾸준히 양심수를 후원하고 지켜왔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멋있고 폼 나는 운동도 많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경용 신부는 어느 기자가 말했듯이 식민지 예루살렘에서 민중의 구원을 위해 로마 병사들과 투쟁하는 '서울의 예수'였다. 밑바닥 민중들과 늘 부대끼며 투쟁하며 살아나가는 그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몇몇 운동권들의 얘기는 먼 나라 얘기다. "내 안에 희망이 없으면 희망은 없다." 그가 후원회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다.

옥살이 어려움은 생활의 불편보다도 동지들과 떨어져 있는 고립감이겠지요.

김도균님께

보내주신 연하장덕에 정말 기쁘게 새해를 내딛고 있습니다. 설날을 보내고 새롭게 새해를 맞은 핑계로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99년 한총련 조통실장으로 활동하다 그 해 5월 경에 구속되어 범청학련 공동사무국과의 회합 · 통신, 황혜로대표 방북 공모 등으로 2년 6월 실형을 받고 지금껏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32살의 씩씩한 청년이랍니다. 경찰 발표 당시, 한총련 출범식을 앞둔 모략극으로 소위 '인터넷 간첩'이라 신문지상에서 농락당하기도 했었죠. 혹시 기억하실는지. 달력을 짚어보니 어느덧 2년 9개월을 채워가고 있네요. 본 형은 이미 다 채웠고 현재 집행유예건 2년 6월형을 덤으로 살고 있답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 예의일 것 같아서...

지금쯤 부시방한을 앞두고 다들 투쟁준비에 바쁘실 것 같은데 집회장 '아시바' 하나 날라다 드리지 못하는 송구스러움에 궁둥이가 들썩여집니다. 고생하시는 동지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치열히 살아내겠습니다.

옥살이 어려움은 생활의 불편보다도 동지들과 떨어져 있는 고립감이겠지요. 하지만 ,매달 옥문을 두드리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따뜻한 정성이 든든한 조직의 품을 느끼게 해주어 외롭지 않습니다. 권오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민족끼리 더욱 굳게 손잡고, 북녘의 아리랑 축제와 남녘의 월드컵 축제 등 민족의 겹경사가 함께 어우러져 금강산 유람선 뱃고동 소리, 경의선 철마 기적소리, 옥문 철커덕 열리는 소리로 어깨 둥실 춤추는 임오년 새해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김도균님께서도 새해 계획한 일 모두 잘 되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2002. 2. 16
이창호 드림.

※추신: 후원회에서 보내주신 '민족21' 1, 2월호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민족21'은 이미 제가 정기구독해 보고 있답니다. 다행히 이 곳 안양교도소내 다른 동지가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부턴 소중한 정성이 다른 양심수 동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호님은 위 편지글에서 스스로 말했듯이 99년 한총련 조통실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5081) 예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2년 6개월이라는 집행유예선고가 있어 실형 5년을 살게 되어 2004년 2월 5일에 출소예정입니다.

"형과 함께 했던 넉넉한 술자리가 그립습니다"

태열형 보세요

코끝시린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진 않았지만,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지면을 통해 형께 글을 띄우게 되었네요. 1월말에 양심수 후원회 앞으로 보내주신 편지를 며칠전에 받아보았습니다. 후원회 간사님이 많이 바쁘신 관계로 깜빡했던 모양이예요.

태열형! 너무 오랜만이지요. 먼저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소식은 가끔 윤희언니 통해서 접했는데, 편지 한장 쓰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건조하고 여유없었던 제 삶을 반증하는 것도 같아요. 형이 연행되신 게, 작년 3월 5일이지요. 그러고 보니 형이 수인의 몸이 된지도 1년이 넘었네요. 2000년 겨울에 처음 형을 만났었지요. 형 모습 보면서 '10년이란 수배의 긴 터널 속에서 좌절과 아픔이 많았을텐데, 어쩜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 하며 자못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진실하고 솔직한 형 앞에서 전 벌거숭이가 된 기분이었지요.

제가 기억하는 형은 안팎이 투명한 운동가, 넉넉하고 겸손한 운동가였습니다. 또한 관념화된 주의주장을 펼치는 운동가가 아니라, 삶의 바닥부터 보듬어 가려는 운동가였습니다. '못배우고 가진 것 없는 민중들과의 진정한 일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운동의 출발점이고 거의 전부'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던 형의 모습은 일상에 안주하려는 저를 채찍질합니다.

목요집회에서 예쁜 딸 지원이를 안고 있는 형의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원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 손잡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와야겠습니다.

'재판' 은 거의 마무리되었더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 징역살이가 시작되겠네요. '전주' 로 이감되시는 게 확실시된다니 마음 속 한편으로 반가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책입니다.(하하) 형이 제 고향 전주에 계시면, 한번이라도 더 찾아뵐 수 있겠다는 생각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광폭한 국가 권력과 힘 없는 자의 싸움이 비극적이지만, 훗날 역사는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태열형을 기억할 겁니다.

"형과 함께 했던 넉넉한 술자리가 그립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형이 사수해야할 필수 사항이구요, 다음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2002. 3. 11.

김민정 드립니다.

● 김민정 님은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으로, 상명대학원 사진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녹꽃과 봄꽃 사이에서

유병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얼마 전 출근길에 집 앞 놀이터 쇠울타리에 쓴 녹을 벗기는 걸 봤습니다. 봄이 되면 한 번씩 묵은 녹을 벗겨내고 그 위에 페인트로 새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쇠가 녹슬고 쉬 바스러진다고 하는군요.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강철도 녹슬고 그러다 보면 쉬 부스러진다….

쇠도 녹스는데 뭐라고 녹슬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 모든 게 녹스는데 쇠라고 녹슬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세상과 함께 사람도 녹슬고 있을 테지요. 차이가 있다면 쇠에는 눈에 보이도록 시뻘겋게 녹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겠지요.

녹이 쇠에서 나와 쇠를 갉아먹듯 사람의 녹도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고 보면 쇠에게 녹은 그냥 녹이 아니라 독입니다. 사람의 녹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람의 독? 그 으뜸은 게으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는 생각의 게으름, 행동의 게으름 말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사람이 웅크린 채 안주하고 녹슬고 있을 때 자연은 해마다 한번 그 녹을 벗겨내고 거듭납니다. 그것이 봄입니다. 녹스는 세상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도 해마다 거듭나는 봄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세상 모든 것이 새로이 태어나는 봄, 사람도 안성마춤으로 새롭게 태어나야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녹슨 쇠막대처럼 작은 힘에도 바스러지고 말 테니까요.

우리는 녹슬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싶어하지만 녹슬지 않는다는 건 늙지 않길 바라는 소망처럼 터무니없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소망하고 그 소망만큼 노력해 볼 수 있는 건 그 녹이 우리들 삶에 최대한 적게 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낡은 세상을 보다 새롭게, 보다 낫게 만들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기 안에 녹꽃이 피지 않도록 자주 살펴야겠지요. 앞에서도 얘기했듯 세상의 녹은 쇠울타리의 녹꽃처럼 잘 보이지만 우리 안에 피어난 녹꽃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게 사람인지라 밖의 녹꽃을 보고 목청돋우기 십상입니다만 녹꽃은 밖보다 보이지 않는 안에서 더 잘 핍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밖의 녹꽃을 과감히 벗겨내려는 의지만큼 우리 안의 녹꽃을 추상같이 걷어내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봄은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연의 봄이 갑옷 같은 두터운 껍질을 벗겨내고서야 오듯 사람세상의 봄도 낡은 껍질, 녹꽃을 다 걷어낼 때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거듭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지금쯤이면 감옥 안에서도 봄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그 안의 봄이야 담장 밖보다 좀 늦게 오겠지만 봄을 맞는 마음은 앞서지 않나 싶네요. 지난 겨울 체온을 감쌌던 내복도 벗어던지고 눅눅해진 벽지도 뜯어내고 새벽지로 도배도 하고 있겠죠. 물론 벽지가 없어 편지지를 이용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새봄을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줄 밖에선 더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들 삶이 쇠막대처럼 녹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마음이 푸르고 마음이 햇살을 받으면서 봄꽃처럼 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의 봄은 그냥 흘러가는 봄일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름답게 거듭나고 있는 봄꽃의 마음을 배우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녹꽃 핀 쇠울타리 곁에 나란히 서있는 나무에서 피어오른 봄꽃에 자꾸만 눈이 가고 맘이 간 이유는 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캐캐묵은 겨울의 껍질을 뚫고 피어오르는 꽃망울. 우리의 거듭남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죽지 않기 위해 녹꽃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움을 세상에 퍼트리는 봄꽃이 되는 것이겠지요.

녹꽃과 봄꽃 사이에서 다시 사람의 길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등산이 몸에 좋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

신현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2월 17일, 우리는 늘 그렇듯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사람이 모이면 출발을 하는데 이번 달 산행 코스는, 그린파크에 모여 남우이능선을 거쳐 안방(이 명칭은 선생님들이 지어주신 것이다)에서 점심식사와 간단한 소개를 한 후 도봉산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일어나 밥하고 도시락 준비하는 동안 그제서야 아이들이 일어나, 세수 시키고 밥 먹이고 준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보니 권오헌 회장님, 유종인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김동수 선생님, 김수룡선생님, 서순정 선생님과 젊은 회원 여러분들이 모두 나와 계셨다.

산 속에는 얼음이 녹지 않았을 정도로 날씨가 따듯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 속에 들어서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심장은 쿵쾅 쿵쾅 드디어 펌프질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심장이 펌프질로 가슴을 답답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답답함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면 말초 혈관이 확장이 되어 피가 온 몸 구석 구석까지 순환이 잘 되는 징표라 한다.) 몸 여기 저기에서 땀이 솟아오르고 머리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가 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지만 땀이 솟아 올랐을 때의 바람은 참 시원하다.

등산이 몸에 좋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작년 4월경부터 였다. 등산은 가끔 쉬는 날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다니던 직장을 접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한 나날이 연속되었다. 일요일이면 도봉동에 계시는 부모님 집에 가는 일이 매주 계속되었다. 대부분 토요일 가서 일요일에 다시 오는데 일요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도봉산 만장봉에 올라가는 산행을 계속해서 하였다. 이른 시각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밥도 먹지 않아 발걸음도 가볍게 아버님과 같이 꾸준히 올라 갔다 돌아 오면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다. 시간은 4시간 가량이 소요 된다. 서울에서 내뿜는 모든 공해와 음식으로 먹는 모든 공해 물질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다. 정말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우선 거칠은 얼굴 피부가 탱탱해지고 흐릿한 눈동자에 빛이 난다.

남우이능선을 거쳐 밑으로 내려 가는 길에 안방이라 칭하는 곳에 도달했다. 크기는 어른 6명 정도 빙 둘러 앉아 식사를 하면 좋을 장소 였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거기만은 따듯하다고 한다. 뒤로는 바위산이 있고 앞으로는 개울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거기에는 불지 않았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2조로 나누어서 점심식사를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 식사도 정해진 식기에 자기 먹을 밥과 반찬만 가지고 앉아 밥 먹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해서 점점 식사하는 것도 고립화되고 파편화 되가는데 빙 둘러 앉아 서로 밥과 반찬을 공유해서 먹는 경험은 할 때 마다 즐거움을 준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자기 소개가 있다. 나는 요즘 두부파는 것이 직업인지라 두부의 좋은 점을 말했다. 인간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류로 대표되는 소고기보다는 살생을 하지 않아서 좋고, 소를 키우기 위해 아마존 숲과 아프리카 밀림을 파괴하지 않아 좋다고 설명해 주었다. 대략 표현해 육식의 종말에서 차용한 논리를 확장해서 말하자면 콩(두부)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싶었다.

자기소개 시간이 끝난 후, 현재 시국에 대한 이창희 간사의 설명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무자비하게 자신의 힘을 정의의 잣대로 삼아 자기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격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미국정부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

안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봉역을 향해 하산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진 갈현동 후원회원, 시사모임 신입회원

3월 3일.

진이가 시사모임에 가입해 처음으로 역사강좌를 준비하는 날이다. 그냥 강의를 들을 때와는 달리 준비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긴장이 되었다. 게다가 감기까지 심하게 걸려 헤매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전날부터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11시에 낙성대에 도착해 수정이 언니가 사온 김밥과 이창희 간사님이 끓여준 라면을 맛있게 먹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다.

1시 30분경부터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 드디어 2시. 한상권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식민지 무단통치와 3.1민족해방운동이라는 주제하에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또다른 강의, 그리고 진지한 질문들, 비디오시청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나, 역사를 보는 시각에서 남의 관점뿐만 아니라 북의 관점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본강의는 끝이 났으나 그 아쉬움은 뒤풀이로 이어졌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시간은 금세 흘러 1차(?)를 끝으로 아쉽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시사모임에 가입해 처음 하는 행사였던 만큼 정말 잘하고 싶었고 끝까지 뒷풀이에 남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몸이 말을 들어주질 않았다.

처음의 미숙함과 서툼은 언제까지 아쉬움으로 남겠지만 첫마음, 여러 선배님들을 도와 열심히 배우고 일하리라는 다짐은 변치 말자 다짐해본다.

4월 회원교육강좌 안내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 4강이 열립니다.
역사가 주는 메시지를 오늘에서 찾아봅시다.

일 시: 4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차 편: 지하철 2호선(낙성대역 8번출구)

해마다 양심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양심수가 발생되는 곳은 통일운동 등 국가보안법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생존권 쟁취의 현장에도 존재합니다. IMF사태 이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 · 농민 등으로 양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양심수의 뜻을 지지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단체로써 그들의 정당한 양심에 대해 귀기울이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서는 발전노조 지도부의 검거를 위해서 경찰이 검문 ·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안부는 회사쪽이 고발한 노조원 442명에 대해 전원 소환조사 방침이며, 정부는 파업참가 모든 노조원의 금융거래통장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례없는 인권탄압입니다. 이에, 오늘도 발전노조는 자신의 양심을 당당히 지키며 이곳 저곳에서 파업의 대장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매각, 알고 보면 매국입니다

1.전력산업 구조개편 · 발전소 매각

: 알고 보면 해외매각

정부방침대로 5개 발전회사를 매각하면, 1개사당 자산규모가 2조-4조원(5개사를 합계하면 총16조원)이나 됩니다. 재벌이라도 제 돈으로는 인수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전회사들은 국내독점 재벌이나 외국의 에너지독점자본에게 인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발전소를 매각(민영화)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알고 보면 발전소를 거대 독점재벌과 외국의 에너지 재벌에게 매각하는 정책입니다.

2. 한해 1조7,000억원이나 흑자를 내는 한전

: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재산.

1998년의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조1,017억원이고 1999년은 1조4,679억원이며, 2000년에는 1조7,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매년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는 우량공기업을 분할매각하여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나눠먹기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알토란같은 국민재산을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헐값으로 나눠주는 것은 역사에 죄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3. 발전소의 분할매각

: 전문 연구자들도 모두 반대하는 "얼치기 공기업개혁"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전의 경영진단반은 1994.7월부터 1996.6월까지 2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한전의 구조개편 방안으로 우선 사업부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되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에서는 1997.6월부터 1998.7월까지에 걸쳐

연구한 결과 한전의 분할매각방안을 명백히 반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일반론적으로 공기업민영화의 이점을 주장하는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한전과 전력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발전소의 분할매각 방안이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조사를 마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정반대로,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발전소 분할매각 정책은 "누구를 위한 분할매각" 입니까?

4. 정부당국의 발전소 분할방안

: 분할과 경쟁에만 급급, 전력기술의 발전에 역행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파괴함.

: 지금이라도 분할매각을 일단 중단하고, 기술적 효율성이 유지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작년(2001년) 4월부터 이미 분할되어 있는 5개 발전회사방식은 전력산업기술이나 발전기술의 발전에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는 1개 발전회사당 석탄발전소 1-2개, 유류발전소 1-2개, 천연가스발전소 1-2개, 복합발전소나 양수발전소 1-2개씩 골고루 안배하여 분할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발전회사를 각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골고루 나눠주는데는 효과적일지언정, 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발전기술의 발전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술경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발전회사들이 모든 종류의 발전에 대한 기술을 갖춰야 하고 또 모든 종류의 시설과 부품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기술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굳이 분할해야 한다면 석탄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끼리, 유류발전소는 유류발전소끼리, 또 천연가스(LNG)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끼리 묶어서 그룹핑하는 것이 발전기술의 전문화를 위해서든, 부품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든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로 기술경제의 효율성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추진된 이유는, 발전연료별로 연료가격의 차이때문에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현상황에서 억지춘향식의 경쟁체제를 만드는데 급급하다보니, 각 발전회사에게 각 연료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식의 그룹핑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력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현재와 같이 법인체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기술경제의 효율이 파괴되게 되므로 이런 방식은 피하는 대신, 같은 법인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업부별로 독립채산제로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발전회사를 분할매각하는 기존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기술적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 발전소 분할매각의 실상 - 엄청난 특혜

: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사례

지난 2000년7월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전소 분할매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제대로 투자하지도 않고(자본금 782억원), 대부분 차입금으로 발전소를 인수한 실상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즉, 총 7,710억원의 매각대금 중 매각대금의 64%인 총 4,940억원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혜성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LG칼텍스정유와 미국계 초국적 기업인 텍사코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LG파워측은 위 차입금의 이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나가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엘지파워는 지난해 12.11 싱가포르 국영전력회사에 1,815억원의 지분을 매각하여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시 우려했던 바대로 요금인상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 한전에 인정되고 있는 투자보수율(1999년의 경우 4.7%)의 2.5배 이상에 달하는 최저 12-15%의 투자보수율을 인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바로 매각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난방요금 인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즉, 경기도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 등 17만여 가구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는 2001년 1월 난방비를 9.13% 올린 후, 7월에 또다시 난방비를 26.8% 인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며 알토란같은 국민의 재산을 재벌과 외국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발전소 매각의 진짜 모습입니다.

6.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발전소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민적 공개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매각 결정과정은 소수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미리 분할매각이라는 정책결정을 해 놓고 사실상 요식행위로 개최된 1-2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를 거친 것 이외에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국이 발주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결과에도 상반되게 막무가내로 발전소 분할매각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발전노조의 매각철회 주장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작년(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가지 법률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못박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런 입법내용을 무시하고 마치 국민적 합의과정이 이미 완료되기나 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해결방안

: 발전소 분할매각을 일단 중단하고, 노·정·공익 추천에 의한 전문가들의 공동조사연구를 통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위와 같이 본질적인 갖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발전소 분할매각은 일단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정·공익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거쳐서 마련된 구조개편방안을 공개하여 국민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지대사인 발전소 매각은 일단 졸속으로 추진되고 나면 나중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졸속강행을 일단 중단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이 긴요합니다.

2002. 3. 5.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전화 : 02-794-5923
팩스 : 02-776-5291
홈페이지 : http://gong2.jinbo.net

벽? 까짓 벽!!

여혜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나는 흔히 '인쇄 · 출판의 메카' 로 일컬어지는 충무로의 작은 사무실에서 「편집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편집디자이너로 일하게 된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내게 여전히 이 일은 녹록치 않다.

사실 지금하고 있는 이 일은 시작할 때 부터 '벽' -그것도 지나치게 견고해서 틈새라곤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는 막막함때문에 홀로 술 한 잔 마셔야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걸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길이기는 했다.

지금도 어제 일인 양 느껴지는 93년 봄, 개인적으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때, 나는 평생 할 만한 일을 찾고 있던 중이었고 단 몇 달간이었지만 전자부품 공장의 쉴 새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납땜을 하는 나이 든 저임금 노동자였다.

함께 일하는 어린 여공들이 당하는 모멸스런 현실과 힘든 노동, 그것들이 잠시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었던 내게도 삭일 수 없는 분노가 될 무렵, 드디어 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바로 이게 내 일이야!' 라는 뜨거운 확신을 가질 만한 장래의 일을 발견했다.

글과 이미지, 내용과 모양새, 내가 생래적으로 좋아하는 그 모든걸 담을수 있는 일, 바로 '편집디자인' 이었다.

이 일은 누구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에 부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 100%의 취업률' 을 내세우던 디자인전문학원을 찾아 상담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보았다.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인 내가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취업이 가능할 것인지를 말이다. 그러자 내 나이를 물어본 담당자가 곤혹스러워 하며 한 답변은 '취업은 보장 못하겠으니 학원 등록 여부는 신중히 생각해 결정하라' 는 것이었다.

그 대답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개의치 않고 곧바로 등록하고 학원을 나오면서 나는, 말 그대로 '젊음' 이 넘쳐나는 대학로의 그 거리에서 한참을 망연히 서 있다가 혼자 술집에 들어가 '벽, 견고한 벽' 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그 '벽' 에 짓눌리며 술을 마셔야 했다.

그 때 나를 짓눌렀던 벽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이 들어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 이었을 거다.

왕언니, 누나로 1년을 공부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길 잘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했고, 낯 간지러운 얘기지만 어린 친구들을 제치고 소위 수석졸업을 했다. 하지만 역시나 나이 탓에 학원에서 추천해 준 업체에 취업하진 못했지만 그나마 주변의 관심과 도움 덕에 일단 디자이너로 취업하고 나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다행히 일복이 많아선지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하면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하게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는 나이가 아니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는지의 여부가 결정적인 벽이 되었다.

'학원 출신 디자이너' —누구도 내 앞에서 그렇게 야유한 적은 없었지만, 나는 때로 그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를 느끼곤 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특히 그랬다. 일의 수주 과정에서 종종 내가 학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나면 당황해 하는 클라이언트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서 짐짓 당당한 척 하기는 했지만 치밀어오르는 슬픔과 무력감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거의 언제나 좌절한다.

하지만, 어쩌랴.

나는 또 여전히 이 일만큼 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바라는 것처럼 마침내는 더도 덜도 말고 한 편의 시 같은 디자인을 해 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니, 당장은 적어도 함량 부족의 디자인으로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이 일이 내가 딛고 설 땅인데…

그래서 언제나 다시 일어선다.

'벽? 그깟 벽 쯤이야…! 하면서 말이다.

알립니다

독거 장기구금양심수들의 생신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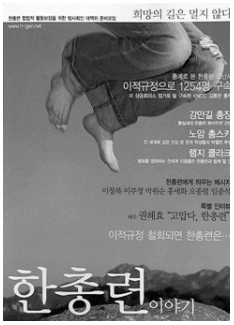
장기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고봉희 할머님, 송환된 장기수선생님들의 사모님 등)의 생신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운영위원 이정태님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전화:** 017-281-5500 ▶ **e-메일:** windiman@hanmail.net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4차 총회가 열립니다.

일시: 2002년 4월 27일 오후 3시
장소: 기독교 회관(구관) 2층 강당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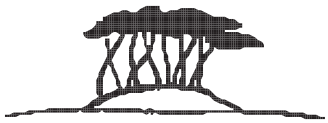
「한총련이야기」발간

1997년 5기 한총련 이적규정 이후 지금까지 125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고, 집회문화가 평화롭게 달라지는 오늘, 공안당국은 여전히 이적성과 폭력성의 잣대로 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배된, 부모된 마음으로 많은 사회인들이 나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기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양심수 발생 예방차원에서라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분들을 대책기구 대책위원(개인 참여)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만원이상의 후원금을 내주시면 '한총련이야기' 책자를 보내드리고, 대책기구 차원의 '한총련 구속·수배반대 선언(신문광고)'에 동참하게 됩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888-4470 ▶ **문의:** 후원회 간사 이창희(019-205-7937)

3월 산행

모진 겨울가뭄 뒤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봄을 맞으며 산에 오릅시다.



일 시: 3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3호선 연신내역 불광동쪽 매표소 앞
준비물: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지하철 3호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북 문경에 계신 박문성 선생님께서 큰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선생님은 환경운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언제나 양심수후원회에 큰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성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뒤늦게 파악하여 이번 소식지 회비납부에는 기재하나, 재정보고는 3월 입금으로 잡았습니다.)

▶ 한겨레신문사에 '좋은 데 써 달라' 고 기증해 온 성금을 신문사 내부결의를 거쳐 양심수후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꼬옥 알려주세요!

회원자료 정리작업을 14차 총회전까지 마무리하려 합니다. 회원님의 이사, 이직 등으로 연락처가 바뀐 경우, 사무실에서는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및 팩스 : 02-888-4470(회원모임방)
전자우편 : yangsimsu@yangsimsu.or.kr

2002년 2월

01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주최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를 위한 간담회" 갖다. 임홍기목사 사회로 김동완 교회협의회 총무의 인사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황인성 사무국장), 의문사진상규명에 대한 제언(허영춘 의문사유가족 비상대책위),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소개(권오헌 특별법개정특위위원장)가 있었고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격려말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음

- 미국에서 노근리 피해자들의 법적문제를 대행하고 있는 마이클 · 최변호사는 '미국 육군감찰관실에서 넘겨받은 노근리조사 기록에서 당시 전쟁 일지를 작성했다는 병사의 증언을 발견했다' 고 말하며, 증언에서는 "대위(중대장)의 명령으로 지휘부천막에 갔다가 손으로 적은 사건보고서를 우연히 봤다" "거기에는 그들(미군)이 길을 따라 내려오는 300여명의 민간인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제까지 미군쪽은 전쟁일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었음

02 종묘공원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전쟁위협 경제침탈 부시방한 저지와 GM규탄 반미결의대회가 소속단체, 노동자, 청년, 학생등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집회가 끝나고 청년학생들은 지하철 옮기면서 선전물 나누어주다.

- 민주공원 건립 부지확정 촉구 농성장 방문하다 - 이 날 오후 경찰이 농성 플랭카드를 탈취해 갔다가 농성자들의 거센 항의로 되돌려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통일애국열사 김양무선생 2주기 추모문화제' 열림
- 통일역사기행단의 단체기행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편' 에 여러 회원들이 함께 함.

03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주관 '역사강좌' 가 열렸음. 한상권교수(후원회 운영위원. 덕성여대교수)가 맡아하는 제2강 '반식민지하 국권회복운동(1905-1910) 강의에는 회원 35명이 함께하는 큰 성황을 이루었고 본 강의외에 질의응답, 푸짐한 뒷풀이까지 이어지면서 역사탐구에 몰두하며 현재적 의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11기 정기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가짐. 대의원 대회에서는 강령개정안, 임원선출안등 심의. 11기 새 지도부로 오종렬 상임의장. 정광훈 · 노수희 공동의장을 선출하고 출범식에서는 깃발입장, 대의원대회 보고, 축사, 연대사, 문화공연, 의장단 옹립식등으로 이어짐.
- 새해맞이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평양에서 북측준비위와의 실무협의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을 2월 19~2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노근리 대책위원회(위원장 정근용)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한 노근리 사건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 이라고 밝힘

04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수유리에서 갖다 - 소식지원고정리, 13차년도 사업평가서 작성, 홈페이지보고, 운영위원회준비등 논의

- 민주공원 확정촉구 농성장 격려방문 - 이창희, 고광희, 권오헌
- 정치개혁의원모임을 중심으로 한 여 · 야의원 16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발언을 강도높게 비판 -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나 세계전략에 따른 선제공격적 전쟁확대반대, 우리민족문제 당사자 해결원칙 존중등을 밝히고 6일 주한미대사관 방문하여 항의할 것이라고 말함 - 성명에는 임종석의원등 여당의원 9명, 김원웅의원등 야당의원 7명 함께 함

05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민주노동당주최 정명아 · 금수경 석방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민주노동당 탄압저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토론회' 열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대표 - 국가보안법폐지등 발제하다

-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근태 민주당고문은 '부시행정부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려는 햇볕정책을 흔들지말라'며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미국이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조
- 김태홍의원등 민주당국회의원 50명은 성명을 내고, '부시발언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구축되어가는 남북사이의 화해교류의 기본틀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
- 여·야「21세기 동북아포럼」소속 의원들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부시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위원장 조현기)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1. 1. 19일 폭격으로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주민 34명이 숨지고 7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가옥 69채가 불타는 등 한국전쟁때 미공군의 폭격으로 큰 피해가 일어났음을 미국립문서보존소에서 입수한 문서에서 밝혀냈다"고 발표
- 통일역사기행단에서 주관하고 광화문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리는 '이북영화상영회'에 회원들이 함께 함.

06
- 세종로 미대사관 옆에서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603개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철회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부시방한반대 제 민주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이 있었음 -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에 대해 전쟁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할 것등 7개 핵심요구사항 발표
-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10차 대표자회의' 열림 - 회의에서는 조직강화 특별위 보고, 범국민행동의 날·민간법정등 보고와 안건으로 1주년기념대회 준비위구성문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 맞이 남북공동모임'에 함께 하는 문제등 논의
- 김성호·김원웅의원등 여·야국회의원 5명은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16명의원의 성명서를 전달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에게 이정태 회원이 면회다녀옴

07
- 민가협 414회 목요집회 -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출소장기수 김영식선생님의 북녘을 향한 세배, 임태열님의 딸 지윤이 아빠에게 세배드림, 양심수를 대신하여 어머님들께 편지글과 절을 올렸고 최원석 어머님 방영수님께서 편지글을 낭독하셨습니다.

08
- 황선대표 석방대책위원회 등이 주관한 서울구치소 앞에서의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을 주제로 한 설맞이 면회투쟁 벌임
- 서울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대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중인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씨와 박준영, 백운종 기자들이 청구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 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남
- 종로구 통의동 코오롱빌딩에서 '민주공원 확정 촉구농성'을 벌이던 유가협회원과 민주공원추진위회원들 서울시당국 등과 조속결정을 확정받고 농성을 풀다
-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제훈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회피한만큼 불구속수사해도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09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을 찾아 뵙고 이강일 원장님과 김명덕 간병아주머님께도 설인사 드리며 함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곽인석, 변의숙, 양계숙, 이창희, 고광희, 권오헌 함께 하였음
-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군기지 아파트 신축계획 발

표와 관련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다

10 ☆ 10~12설 연휴

13 ☆ 중곡동에서 혼자 살고 계신 고봉희(신인영선생님 어머님)할머님을 찾아 뵙고 설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바깥 소식을 잘 모르시는 할머님께서 아드님 만나시길 바라고 계신 모습 참으로 안타깝게 했습니다. 성효진, 양계숙, 이득행, 변의숙, 곽인석, 권오헌이 함께 했고 이어 번동에 사시는 박정숙, 김선분 선생님을 찾아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마침, 김선분 선생님께서 80 생신을 맞으셨기에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문재룡선생님과 오영순, 박정철, 한찬욱, 이창희, 이진, 곽인석, 변의숙 회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14 ☆ 임기란 상임의장님을 비롯한 민가협 어머님들과 수유리 박용길(공동의장)장로님께 설인사를 다녀왔습니다. 박장로님께서는 고령이심에도 언제나 건강한 모습, 웃음을 잃지않고 문익환 목사님의 유품을 정성껏 보살피며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맏아드님을 잃으신 아픔은 안고 계십니다. 박용길 장로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소식(124호)원고, 사진 등 최종교정 · 정리하다

15 ☆ 옴시롱감시롱은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300,000원을 문재룡선생님 치료비로 써달라며 양심수 후원회에 전해왔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여기에 200,000원을 보태어 500,000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로 이종린의장과 김영옥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김호현, 권오헌 다녀왔습니다.

☆ 권오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특위위원장), 유가협 의문사진상규명비상대책위 가족들과 함께 한나라당 이재오총무를 방문, 2월 임시국회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킬 것을 촉구

☆ 종로 탑골공원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설맞이행사 성공적 개최와 부시방한반대 제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가짐

☆ 한총련 소속 대학생 20여명은 세종로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대형성조기를 불태우며 '전쟁책동 무기강매 부시방한 반대 등 구호를 외치는 기습 시위벌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 미 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150인 선언' 을 발표, 미국의 전쟁전략 · 일방주의를 규탄

16 ☆ 종묘공원에서 투자협정 · WTO반대 국민행동, 서울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등 공동주최로 '한반도전쟁책동, 신자유주의 세계화강요, 6 · 15남북공동선언 파탄내는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가 소속단체회원과 서총련학생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 집회를 마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

☆ 옴시롱감시롱(으뜸일꾼 모지희)은 봉천동 우리탕제원에서 선생님들께 설인사를 드리고 2월모임을 가짐. 모임은 양희철 선생님의 살아오신 이야기, 동의학을 연구하는 이야기등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었으며 4월 역사기행 준비등 협의

☆ 후원회 소식 124호 발송작업 - 낙성대 만남의 집 회원모임방에서 - 마친 다음 옴시롱회원들과 마침 새로 회원으로 가입한 민중노래패 '우리나라' 단원 조상희 회원 가입 환영의미의 푸짐한 뒷풀이도 있었음, 소식지 작업에 변의숙, 이창희, 고광희, 이진, 양계숙, 김민정, 한찬욱, 김호, 조상희님 등이 함께 함.

17 ☆ 전국철도노동조합원 1천여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철도민영화 완전철회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서울지역 총파업출정식"을 열고 '민영화 철회와 24시간 맞교대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스 · 발전노조와 함께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밝힘 - 집회가 끝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18 명동 YWCA강당에서 종교인, 여성, 문화 · 예술, 언론 · 출판, 시민 · 민중단체, 인권, 법조, 평화 · 통일, 노동, 농민, 빈민, 민족, 보건의료, 청년, 대학생등 각계 대표가 함께 하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300인 평화선언'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음

- 광화문 열린공원에서는 통일연대 소속등 사회단체 대표등 100여명이 모여 '부시방한반대 농성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농성에 들어감 - 그러나 오후 6시경 경찰은 농성자를 강제해산 청년 · 학생들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을 했음 - 한편 지도부는 농성장소를 명동성당으로 옮겨 농성을 계속함
- 한총련 소속 대학생 28명은 삼성동 무역회관 45층에 있는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기습점거하고 창밖에 '전쟁책동 무기강매 부시방한 반대'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걸고 '대북강경책철회' 등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농성 - 그러나 경찰 특공대에 의해 강제연행 · 조사받고 있음
- 민가협 17차총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창신동 사무실에서 열림. 총회준비위원장에 임기란, 현상임의장 호선의제체택, 일시 · 장소확정, 3.16일. 3~6시. 기독교회관 2층강당 - 이어 민가협 사업평가등 있었음
- 양심수후원회 제13차년도 10차 운영위원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림. 1월 활동~재정보고에 이어 14차년도 총회준비위구성안(지도위원3명, 감사3명, 운영위원(회장단포함), 사무국간사)채택, 3월 8일 첫 모임 갖기로. - 북녘동포돕기모금액 북녘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에 지원키로 결정. 남북새해맞이 공동모임에 김호현 운영위원을 대표로 - 이정태 운영위원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대표로 합의했음을 발표. 그 외 한총련 대책위에 적극 참여하기로 등 결의

19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통일연대, 민화협, 7대 종단이 함께 하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2002년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의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방한반대 뜻을 밝힘

- 11시 30분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장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부시 미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한 · 일(일 · 한) 시민 · 민중들의 공동선언' 발표 - 한편 서울공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성원 200여명이 부시방한 반대집회와 시위를 벌였음
-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주최로 '부시방한에 따른 전민특위 남측본부 투쟁 결의대회' 열음 - 대회사 · 이종린(전민특위 남측본부장), 투쟁결의연설 · 이천재(서울연합 상임대표),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대표), 결의문낭독 · 김규철(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이어 미군학살 유족들 인사, 영령들에 분향헌화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하다
- 4시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 주관으로 KAL858기사건 진상규명 위크샵 열림. 현준희, 심재완변호사 발표, 참가자 질의응답 등 -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민가협(권오헌)외 여러 단체 대표 함께하다
- 7시 30분 여의도 국회 후생관에서 김경환씨 옥중 산문집 출판기념 준비모임 주관으로 민혁당 사건으로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말'지 기자 김경환씨의 옥중산문집 '비상을 꿈꾸는 새는 대지를 내려다본다' 출판기념회 열음. 임기란회장, 정범구의원, 권영길대표들이 축사를 했고 정태춘씨의 축가, 출판사 주간 문부식씨의 책헌정, 김경환씨 부인 이경희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뒷풀이 시간도 가졌습니다. 옥중산문집 출간을 축하합니다.

20 종묘공원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성원 10,000여명이 모여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를 열다. 부시의 전쟁책동규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 정리해고, 투자협정, 농산물수입개방 등으

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질배후세력, 미국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집회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농회원들이 상징적 성조기를 불태우려 하자 무장경찰이 기습침탈, 방패와 진압봉으로 무차별 목력진압을 하여 평화를 여는 여성회 대표 이현숙씨가 얼굴에 30여곳이 넘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강제연행되다. 집회 참가자들이 침탈경찰을 몰아내고 집회를 마친다음 명동성당으로 옮겨 한총련 학생 30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정리집회 마침. 양심수후원회는 곽인석, 변의숙, 오영순, 이진, 이정태, 이창희, 고광희, 이승미, 노혁, 한수정, 이득행, 송창학, 김호외 여러분 범국민대회에 함께 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 한상렬목사님이 특별히 사 주신 저녁식사를 하며 고광희 간사의 생일축하도 했음

- 민가협의 구속학생 학부모회는 민가협 회의실에서 2002년 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조순덕(위영석어머님), 부회장에 박경순(정병도어머님), 박영옥(심재춘어머님), 이귀임(백주선어머님), 이영(백인승어머님)님이 뽑혔다. 후원회장에는 안금득(조형건어머님), 감사에는 김정숙(임종석어머님), 김순임(김덕영어머님)을 선출했습니다. 구학협의 발전을 빌고 축하드립니다.
- 옴시롱 감시롱(으뜸일꾼 모지희)은 2.20일 2000.9.2일에 북녘으로 가신 김선명 선생님의 생신을 맞아 회원모두의 뜻으로 축하드리고 가정을 이루신 사모님과 함께 만수무강을 비는 축하광고를 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정보원이 입법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내다. 의견서에서는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 및 절차규정등이 국제법 인권법 기준에 위배된다' 고 밝힘
- 18일 한총련 학생들의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미국쪽이 '테러사건' 으로 보고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우리 경찰에 알려달라고 했음이 드러나 민족적 분노를 낳게 하고 있음.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다음 날 대사관 출입 외사과 형사를 통해 가담학생 32명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고 밝힘 - 한편 서울시검 공안2부(부장 황교안)는 20일 농성참가학생중 김아무개(21)씨 등 4명을 현존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에게 이정태 회원이 면회다녀옴

21

- 10시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장에서 민중연대 소속단체들이 함께하여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을 열고 '악의축' 발언이후 이어진 부시 행정부의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20일 종묘공원 집회장소 침탈폭행한 경찰의 방해책동을 규탄
- 11시 국회앞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주최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기자회견' 을 갖고 이어 대표단 국회에 들어가 폐기촉구서한 전달 - 임기란, 홍근수, 진관, 권오헌
- 2시 민가협 415회 목요집회 - 여는 말 · 임기란 상임의장, 부시방한과 관련 규탄 및 경찰 폭력 규탄발언 · 이천재, 이관복, 권오헌등 - 집회를 마치고 임기란 상임의장과 어머님들과 함께 영등포 경찰서로 정광훈 전 전농의장과 대외협력국장 배형택씨 면회
- 향린교회에서 4월혁명회 민족학교 2기 입학식과 첫 강의가 있었음. 개강인사말 · 황건 (4월혁명회 상임대표), 축사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대표), 첫 강의 · 오종렬(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의장의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주제로 강의를 마치고 뜻있는 뒷풀이가 있었음
-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판사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 영안실 전 부소장 앨버트 · 맥팔랜드에 대해 구인장 재발부
- 서울지검 공안2부는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로 경원대 총학생회 정아무개 씨등 6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

22 ㆍ 20일 범국민대회장에서 경찰의 불법침탈 폭력만행에 항의하여 민중연대 대표들(권오헌(민가협), 허영구(민주노총), 홍번(전농)외) 경찰청 방문. 책임자처벌 공개사과 피해보상 재발방지책 등을 촉구하다.

23 ㆍ 전국연합, 반미여성회, 금강초롱, 70년대 노동운동회 공동주관으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이옥순열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음 - 추모노래, 약력소개에 이어 류락진, 남성헌, 오종렬의장 등 추도사가 있었고 단체별 분향 헌화를 했음. 김정숙, 서경순, 조순덕 운영위원을 비롯한 민가협 어머님들 함께 하였고 후원회에서는 이정태, 권오헌 함께 했음.

ㆍ 인천 나사렛병원에 계신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시 황은경, 김현애 회원이 문병을 다녀옴.

24 ㆍ 양심수후원회 2월 산행모임이 있었습니다.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 모여 모두 28명이 우이암 남능선 안방-무수골-자현암-도봉전철역쪽으로 내려오는 산행. '안방'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개시간-시사모임시간(부시망언-방한관련)을 갖기도 했음. 김창희, 송창학, 모지희, 신현부, 이득행, 양계숙, 김동수, 한수정, 변의숙, 김재선, 이정태, 신현익, 이승미, 고광희, 서순정, 유기진, 김교영, 김영식, 김수룡, 송세영, 류종인, 조상희, 이창희, 권오헌님 등과 아이들이 함께 했음

ㆍ 건국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와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7주년 기념대회가 열림. 기념대회에서는 서총련 문예패의 문예행사에 이어 이종린의장의 대회사, 박정기 · 권낙기 · 노수희 · 정현찬 · 권오헌등 축사, 문예공연등이 이어졌음 - 송창학, 한수정, 김재선, 신현익, 이정태, 이승미, 조상희, 고광희, 권오헌 함께 했음

ㆍ 3대공공노조와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노조협상 ·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0여 노조원이 모인 가운데 발전 · 가스노조원은 서울대에 다시 모였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도부와 공공노조 위원장등은 명동성당에 모여 농성에 들어감 - 공공노조는 공기업 민영화철회,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 근무제도입,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장했었음

25 ㆍ 삼성동 무역회관앞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와 부시방한반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농성관련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 주관주최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농성 테러조작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갖다. 홍순석 사회로 이천재 취지설명, 권오헌 기자회견문 낭독, 농성자 상황보고 등

ㆍ 철도 · 발전등 공기업노조 25일 부터 동시파업에 들어감 -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36명에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

ㆍ 이천재, 권오헌, 전상봉외 주한 미상공회의소 소장 테미 오버비를 만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상공회의소에 가서 농성하게 된 것은 부시의 전쟁책동발언 때문이며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 투자협정등 경제침탈 행위때문이었음을 말하고 농성학생들을 '테러' 따위로 말하는데 엄중항의

ㆍ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파업) 등 혐의를 적용 징역5년 구형 - 이창희, 권오헌 방청

ㆍ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 125호 후원회 소식 발행, 14차 총회준비(사업평가서등), 금강산 공동모임, 지방양심수후원회와의 연대모임, 출소양심수 환영단 문제, 한총련 대책위문제 등 협의

ㆍ 26일 금강산으로 떠나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후원회대표와 송환추진위 대표인 김호현 · 이정태 운영위원과 이정규운영위원, 권오헌 저녁식사를 나누며 환송의 뜻 시간 갖다

ㆍ 정부당국은 오후 늦게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

동모임' 남측참가단 신청자 가운데 46명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오다. 불허자 중 통일연대 소속 참가자가 40명이나 되어 잠정적으로 모두 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각 참가단에 통보하다

26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공동모임 참가단과 대표들은 아침 6시 30분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 모여 정부당국의 불허통보의 부당한 조치에 항거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 공동모임 행사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힘

⁂ 7대종단과 민화협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7시 서울을 떠나 속초로 그리고 설봉호로 금강산 장전항에 도착

⁂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11일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한 다음 3.12일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제38차 회의를 열고 고 계훈 제씨 등 14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 소식지 편집모임을 인사동 '천강에 비친 달'에서 가짐. 이정규, 여혜정, 이승미, 이창희, 오영순, 박정범, 이정태 회원 등이 함께 함.

⁂ 시사모임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렸음. 이진, 송창학, 한수정 회원 등이 함께 함.

27 ⁂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민중연대와 주한 미상공회의소 농성관계자 구속자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농성 조작수사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관복, 권오헌, 서경원 대표들의 규탄발언이 있었고 한상렬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상렬, 권오헌등 대표단 검찰청 방문, 농성 조작수사 즉각중단 촉구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는 역삼동(사)북녘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를 방문 심재식 이사장과 양동일 이사등을 만나 양심수후원회에서 북녘동포돕기운동을 벌여 모금한 4차분을 어린이의 약품 지원본부에 전달할 의사를 밝히고 전달날짜·방식등 협의

⁂ 2002년 새해맞이 공동모임 북측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는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의 책동에 의해 행사 발기 단체인 통일연대 대표들의 행사참가가 전면 불허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해 북남 공동모임이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됨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에게 이정태 회원이 면회다녀옴

28 ⁂ 민가협 416회 목요집회 - 여는말·임기란 상임의장, 여·야 합의로 3월 통과시키겠다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내용으로 류은숙·박성희 발언과 민가협 성명서를 조순덕 구학협회장이 낭독

⁂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복회(회장 윤경빈)와 함께 심사해온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 692명 명단과 친일행적 공개. 이 모임은 또 광복회가 명단공개를 꺼린 방응모, 김성수, 모윤숙 등 16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친일파로 규정 명단 발표

⁂ 민가협 회원(허인회씨 어머님)이시고 후원회 자료회원이셨던 강옥수님께서 심장병등으로 오랜 투병을 해오시다가 27일 오전 11시 30분 운명하셨습니다. 민가협 어머님들과 고려대 안암병원 영안실(202호)로 문병 다녀왔습니다. 3.1일 영결식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 향린교회에서 4월혁명회 민족학교 제2기 2, 3강이 있었음. 제2강에서는 민주노조연구소 김승호이사장의 '민족문제의 중요성과 노동운동의 문제' 주제로 강의했고 3강은 한림대 정외과교수이고 한글문화연대 대표인 김영명교수의 '친미사대주의, 언어제국주의, 우리말의 위기'를 주제로 강의

⁂ 말지 4권과 '민족21' 10권을 양심수에게 발송함

⁂ 감옥에 있는 양심수 85명에게 영치금을 보냄.